

## 21세기의 선교전략 : 자비량 선교

최한규  
(신대원 1년)

### 목 차

#### 서론

- A. 연구 동기와 목적
- B. 연구 방법 및 범위

#### 본론

- I. 해외 선교의 전환기
  - A. 자비량선교 - 세계 선교의 “제 3의 물결”
  - B. 제한 국가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자비량 선교
    - 1. 제한이란 무엇인가?
    - 2. 제한 국가의 분포
- II. 자비량 선교의 개념과 성경적 근거
  - A. 자비량 선교의 개념 정의
  - B. 자비량선교의 성서적 근거
    - 1. 구약과 신약에서의 자비량 선교
    - 2. 자비량선교사 바울
- III. 자비량 선교의 역사
- IV. 자비량 선교의 준비와 훈련
  - A. 준비(PREPARATION)
  - B. 훈련(Training)
- V. 자비량 선교의 전략
  - A. 자비량 선교사의 유형
  - B. 새로운 선교 전략

#### 결론

- A. 자비량선교의 장·단점
- B.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제안

## 서 론

### A. 연구 동기와 목적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70%이상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선교가 불가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국이 점점 정규 선교사들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 II 선교 대회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일반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119개국에 이르며 이러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38억에 이른다.<sup>1)</sup> 이런 점에서 볼 때 평신도 참여 없이는 온 세계의 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로잔 II 선교 대회에서 결론 지었듯이, 최근의 선교 동향 또는 선교 전략 중 자비량선교(Tentmaking)는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방법이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더욱더 많은 정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인구 2/3이상이 정규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우리의 선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 국가의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로잔 II 선교 대회는 1974년의 로잔 대회를 계승한 것으로 15년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1989년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개최 되었다.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Tentmaking(자비량 선교 혹은 전문인 선교)이었다. 금세기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자비량 선교의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자비량선교(Tentmaking)는 성경적 근거를 가

1)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서울: IVP, 1990), p. 65.

지고 있으며 선교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방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와 기아 그리고 빈곤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촌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다. 20세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21세기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21세기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제한 국가들과 인종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에는 어떤 선교와 전략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로잔 II 선교 대회의 주요 주제인 자비량선교에 관한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1세기에는 더욱더 제한 국가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선교 전략은 자비량 선교사 파송이다. 금세기 말에 해외의 복음주의자들은 자비량선교의 긴급성을 인식 하였던 데 비해 한국 교회는 21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 근거로 선교사 파송 현황<sup>2)</sup>이나 관련 자료의 빈약성 그리고 교회의 자비량 선교에 대한 열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로잔 II 선교 대회 직후 출간된 자료들과 관련 단체들의 글들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범위를 다루었다.

제I장에서는 해외 선교의 전환기로서 자비량 선교가 제3의 물결 흐름과 제한 국가의 증가에 따른 전략적 대안으로 등장하였음을 기술하였다.

2) 1994년 선교 한국에서 발간한 Handbook이나 각 교단 선교사 혹은 선교 단체의 파송 현황에 자비량 선교사의 파송은 극히 찾아보기 어려웠다(관련 전문 선교 단체 제외).

제Ⅱ장에서는 자비량선교의 개념과 정의를 학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비량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바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자비량선교는 선교 역사상 미미한 흐름이었지만 현재 까지 이어져 왔다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자비량선교의 준비와 훈련을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자비량선교의 전략적 측면에서 자비량 선교사의 12가지 유형과 몇가지 실례를 통하여 제한 지역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임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자비량선교의 장·단점과 자비량선교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 제안으로 글을 맺었다.

## 본 론

### I. 해외 선교의 전환기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 또한 자비량 선교사의 역할과 사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 정의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교회에서 때때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비량선교(Tentmaking)에 대해 바른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미전도 족속(Unreached People)"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약 12000개의 미전도 족속이 있다. 이 숫자는 지난 10여 년간 랄프 원터와 선교 학자들간에 결충된 의견이다<sup>3)</sup>. 세계 미전도 종족의 80%가 북위 10도와 40도 안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각형 지대를 10/40창문이라고 부른다. 10/40창문 지대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아직도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술이나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그리스도인들은 환영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인 사역은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며 전통적인 개념의 복음전도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A. 자비량선교 - 세계 선교의 "제 3의 물결"

오늘날 세계 선교는 제 3의 물결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sup>4)</sup>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농경시대의 사람들은 산업 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돌아가며 일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산업 혁명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플로피 디스켓 한 장에 엄청난 양의 자료가 저장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 3의 물결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제 2의 물결적인 개

3)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 「세계 미전도 종족 현황과 도전」-그 선교는 어디까지 되어 왔는가? (서울: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 1995), p.7.

4) 김인수 외, 「21세기를 향한 전문인 선교와 비전」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추수 전략을 가지라」 (서울: 나침반, 1994), p. 217.

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선교는 제 3의 물결화로 접어들어 전방위(全方位)의 선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방위 선교는 선교 대상자들이 선교하는 국가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선교까지 포함한다. 미국이 선교의 제 3의 물결화의 좋은 예이다. 미전도 종족들이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 땅으로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 결과로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들이 세워졌다.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하고 있는 선교 개념의 두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첫째로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이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개념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제 3의 물결의 흐름에는 특별히 따로 선교사가 없을 수도 있다. 선교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19세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제 3의 물결적인 사고방식은 “나도 선교사일 수 있다”이다.

둘째로 고도의 전략이 있는 입체 작전이 요구된다.

각 선교 단체들은 지역별로 나뉘어 전문화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선교 단체들로는 동아시아의 OMF, 북아프리카의 수단 내지 선교회, 중동 지방의 중동 선교회와 흥해선교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선교 단체로는 성경 번역 선교회, 컴퓨터 선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선교 방식은 전문화를 추구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공중에는 정보가 땅에서는 육군이 움직이고 해군의 항공모함에서는 계속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선교 본부도 이와 같은 식으로 선교를 위한 입체적인 움직임들을 전부 지시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를 ‘지구촌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각 나라간의 거리가 좁혀졌

5) Ibid, pp. 218-220.

으며,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한다. 선교에 있어서도 제 3의 물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시대의 바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자비량선교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선교 전략이다. 이제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자비량선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 B. 제한 국가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자비량 선교

21세기 선교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은 전문적인 선교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인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매년 어떤 형태이든지 일체의 외국 선교를 허락하고 있지 않는 국가와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 데츄나오 야마모리는 2000년도에는 이러한 제한 국가가 77 내지 84개 국가로 인구는 성장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65내지 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불신자의 83 또는 84%가 그러한 나라에서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21세기 선교와 전략은 제한 국가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1. 제한이란 무엇인가?

제한(Restriction)이란 어떤 형태든지 일체의 외국 선교를 허락하지 않거나, 자신의 영토 내부에서 복음 전도를 엄하게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은 선교사나 자국내 신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데츄나오 야마모리는 God's New Envoys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7)</sup> “제한이란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접근

6) 데츄나오 야마모리, “확대되어 가는 미완성 과업” 「직업 선교」 이득수 역, p. 79.

7) Tetsunao Yamamori, 「God's New Envoys」 (Oregon: Multnomah Press, 1986), p. 23.

할 수 없는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또한 제한 국가, 폐쇄 국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 2. 제한 국가의 분포<sup>8)</sup>

현재 완전 제한, 매우 제한된 국가, 제한된 국가, 약간 제한된 77개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00년도에는 43억에 불신자는 36억이 회교 부적에 속한다고 랠프 원터(Ralph Winter)는 밝히고 있다.<sup>9)</sup>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전체 선교사 수의 10% 미만과 선교 기금의 5% 만이 제한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복음화 인구 중 모두가 전통적인 선교사에게 제한된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제한 국가에 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테츄나오 야마모리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제한 지역 국가 분포를 대신하고자 한다.<sup>10)</sup>

### 아프리카

매우 제한된 국가	제한된 국가	약간 제한된 국가
이디오피아(53.67-32.20) 리비아( 4.74- 0.12) 모리타니( 2.28- 0.02) 소말리아( 6.54-0.004)	알제리(36.66- 0.38) 앙골라(12.46-12.09) 이집트(64.59-10.49) 기니( 8.46- 0.09) 모로코(35.9 - 0.13) 모잠비크(17.67- 8.83) 수단(38.98- 4.49) 우간다(24.16-20.42)	브룬디( 7.28- 6.95) 차드( 6.91- 2.41) 콩고( 2.72- 2.54) 말리(11.26- 0.28) 니제르( 9.57- 0.02)

8) 이 통계는 현재와 다를 수 있다. 1985년을 기준 하여 작성된 통계이기 때문에다. 계속적인 전개에 있어서 기준 점은 1985년이다.

9) Ralph winter, *Mission Frontiers*, August/September 1985, p. 3. 테츄나오 야마모리 “확대되어 가는 미완성 과업” p. 80에서 재인용.

10) Ibid, pp. 82-89.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완전 제한된 국가	매우 제한된 국가	제한된 국가	약간 제한된 국가
	캄푸치아 (15.82-0.01)	버마(54.9-4.01) 중국(1,227.3-1.5)	브루나이 (022-0.02)
몽고(2.9-0.006) 북한(27.46-0.19)	라오스 (5.73-0.11)	말레이시아 (22.05-1.65)	태국 (85.62-0.97)
	베트남 (75.8-5.79)		대만 (24.67-2.49)

###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매우 제한된 국가	제한된 국가	약간 제한된 국가	제한되어 가는 국가
아프가니스탄(36.65-0.016) 이라크(24.45-0.71)	바레인 (054-0.02)	বাংলাদেশ	
이란(66.59-0.46) 쿠웨이트(31.18-0.12)	네팔 (23.2-0.01)	(144.35-1.12)	레바논 (6.12-3.21)
사우디아라비아(20.5-0.31) 시리아(15.82-1.1)	인도 (1,059.43-49.79)		
터키(72.59-0.19)	오만 (1.64-0.007)		

### 남미

매우 제한된 국가	약간 제한된 국가	제한되어 가는 국가
쿠바(15.26-5.3)	가이아나(12.5-0.6) 니카라구아(5.15-5.12) 수리남(0.9-0.68)	칠레(15.36-13.92) 콜롬비아(51.46-49.63) 코스타리카(3.70-3.54) 멕시코(132.24-125.59) 파나마(3.23-2.9)

## Ⅱ. 자비량 선교의 개념과 성경적 근거

### A. 자비량 선교의 개념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자비량 선교(Tentmaking)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예컨데 자비량 선교(Self supporting Mission), 전문인 선교(Professional Mission), 텐트메이커(Tentmaker Mission), 기능인 선교(Skilled Mission) 등으로 불리워 지는데 모두 대동소이한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이 중에 어떤 한가지만 일컬어 사용하기에는 다소 특정분야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OMF 총재인 데이빗 핵카드는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그는 자비량선교사(Tentmaker)를 경우에 따라서 사도바울이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돈 해밀튼도 데이빗 핵카드의 지적에 동의한다<sup>12)</sup>.

“본국이나 타국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다 ‘자비량선교사(Tentmaker)’는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비량선교사는 아니다. 타문화권에서 일하는 그 리스도인을 뜻하며, 그 문화권에서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의 헌신, 소명, 동기, 훈련 면에서 분명히 선교사의 자격을 갖춘 이들을 자비량선교사(Tentmaker)라고 부른다.”

자비량선교사(Tentmaker)에 대한 개념 정의를 데이빗 핵카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

11) 데이빗 핵카드, “OMF와 전문인 선교”, 「아시아 기도」1991년 5/6월호, p3.

12) 돈 해밀튼,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진환 역, (서울:조이선교회, 1991), p22.

13) 데이빗 핵카드, 「OMF와 전문인 선교」, p4.

도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을 찾아 타문화권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을 말한다.”

舛 시멘스는 사도바울의 사역을 통해 자비량선교사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14)</sup>.

“자비량선교사(Tentmaker)란, 직업 현장과 여가에 타문화 전도를 시행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선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직업 선교사는 제자를 삼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며, 가정 교회를 시작하고, 성경 번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업 선교사는 교회에 어떤 비용 부담도 주지 않고 일해야만 한다. 재정은 일반 봉급, 양도금(grants), 장학금, 자영 사업과 독자적인 수입으로부터 재워질 수 있다.”

허버트 케인 교수는 Tentmaker를 무릇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되 그 직업을 통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종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헌신적인 크리스챤으로 정의하고 있다. 앤드루 다이먼드는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연히 선교사로 되 생활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비부담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다<sup>15)</sup>.

직업 선교와 자비량선교를 용어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영어로는 둘다 Tentmaker로 사용한다. 선교학자들이나 자비량선교사들(Tentmakers)들도 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도 두 단어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자비량 선교사의 이해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기술하고, 자비량선교에 대한

14) Herbet Kane, Winds of Change in the Christian Misson. (Chicago: Moody Press, 1973), p.177.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안풍역(서울:순출판사, 1993), pp.23-24. 재인용.

15) Andrew Dymond, BMF, quadrennial Report, Karachi, pakistan, 1978.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p.24. 재인용.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1) 일반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자비량 선교사로 부르지 않는다.
  - 2) 해외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야 함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 3) 전통적 개념의 선교사역(성직자 중심)을 탈피한 것이 자비량 선교는 아니다.
  - 4) 자비량선교가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니다. 자비량선교사(Tentmaker)의 개념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해당되겠지만 근거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는다면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자비량선교사(Tentmaker)는 자신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권에서 예수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이다.

#### B. 자비량선교의 성서적 근거

자비량 선교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비량 선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Tentmaker”란 용어는 사도행전 18:3절에 나타나 있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and because he was of the same trade, he stayed with them and they were working ; for by trade they were tentmaker)”<sup>16)</sup>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성경에는 바울 이전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자비량하여 선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NASB

#### 1. 구약과 신약에서의 자비량 선교

**구약성경**<sup>17)</sup>: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2:15)’와 같이 아담은 엔덴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요 이삭은 농사하는 자요, 하갈은 집안 일을 돌보는 자요, 이삭은 농사하는 자요, 리브가는 물을 긋는 자요, 야곱은 양 폐를 돌보는 자요, 라헬도 양을 지키는 자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요, 미리암은 아이 보는 자요, 모세 역시 양을 돌보는 자요, 브사렐은 숙련공이요, 여호수아는 사령관이요, 라합은 여관 주인이요, 드보라는 나라를 구한 자요, 기드온은 군사 지도자요, 삼손은 당할 자 없는 장수요, 롯은 이삭 줍는 자요, 보아스는 농사하는 자요, 다윗은 통치자요, 아삽은 작곡가요, 솔로몬은 제왕이요, 시바의 여왕은 관리자요 융은 경건하고 신사적인 농장의 주인이요, 아모스는 소작인이요, 바룩은 저술가요, 다니엘은 수상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이요, 에스더는 왕후요, 느헤미야는 방백이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많은 왕들과 방백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신약성경**<sup>18)</sup>: 우리 주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마르다는 집안 일을 보살피는 자였고, 삽개오는 세리장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은 공회의원이요, 바나바는 지주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요, 누가는 의원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들이요, 루디아는 자주 장사요, 세나는 교법사요, 에라스도는 성의 재무였다.

#### 2. 자비량선교사 바울

자비량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모범자는 Tentmaker 바울이었다. 바울은

17) 크리스티 윌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p29.

18) Ibid, p29.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Tent-maker로 일했다. (행18:3; 살전2:9; 딤후3:7-9; 행20:33-35) 그러나 바울의 주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천막을 만드는 그의 직업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를 돕는 역할을 했다.<sup>19)</sup>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가 주목적이었다면 자비량 선교사역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의도를 살펴봄으로 나름대로의 답변을 얻고자 한다.

#### a. 바울은 복음의 신뢰성을 염두에 두었다.<sup>20)</sup>

그는 대부분의 순회 설교자들과는 달리 청중으로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와 동기가 의심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았고',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했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자'도 아니었다(고후6:3-10; 고전1:17; 2:1; 4:12; 갈1:10.11)

바울을 따랐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의 사역은 타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역보다 희생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바울이 여러 차례 후원 현금을 받았다면 그들의 비난에 대해 더 이상 변명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b. 바울은 동질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sup>21)</sup>

그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헬라인

19) Ibid, p.30.

20) 룸 시멘즈, “새로운 선교의 길, 타문화권 직업 선교의 성경적 근거” 「직업선교」 이득수역, p.39.

20) 룸 시멘즈, “새로운 선교의 길, 타문화권 직업 선교의 성경적 근거” 「직업선교」 이득수역, p.39.

21) Ibid, pp.39-40.

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였다(고전9:20-23). 일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연명하는 형편없이 가난한 경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택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던 예수를 모방한 것이다. (빌2:5-11; 고전11:1)

#### c.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sup>22)</sup>

그가 직업을 통해 노동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구자들과 개종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바울을 통해 변화된 이들도 역시 사역비를 받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직업을 쉽게 바꾸지 않았는데, 그것은 옛 동료들도 그들의 변화된 삶을 목격하고 예수를 발견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d. 바울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sup>23)</sup>

그가 교회를 개척한 주된 목적은 토착적인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개척한 공동체들은 반드시 자립적이고 주변 환경에 깊이 관련된 것이어야 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히 자비량 하였고 외부원조에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개척한 교회에서 직접 목회하지 않았고 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물론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현지 개종자들을 지도자로 택했다(딤전3:7)

바울에게 있어서 자비량 선교는 복음 전파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 조달과 교회의 자립,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을 전파에 중요한 밑거름은 역시 자비량 선교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22) Ibid, pp.40-41.

23) Ibid, pp.41-42.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그의 자비량 선교 전략은 당시 세계에 급속한 기독교의 확장을 이루하였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의 모델을 예수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여 적용하였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울이 사명하였던 자비량 선교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바울이 가장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자비량 선교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출발함으로 새로운 선교 시대의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 III. 자비량 선교의 역사<sup>24)</sup>

일반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이 제약을 받음을 인해 자비량 선교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적으로 지원 받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Tentmakers 도 사용하셨다.

본 장에서는 자비량선교의 역사를 고찰함으로 앞으로의 자비량 선교 전략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 1. 동방교회의 Tentmakers

주후 339년부터 448년까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처럼 이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평신도들이었다.<sup>25)</sup> 그들이 가 있는 땅에서 손수 일하거나 혹은 그 땅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집

24)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의 '자비량 선교역사' 중 요약.

에서 비서로, 의사로, 또는 청지기로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어 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의 전도 활동으로 11세기에는 아시아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럽 전체에 있던 숫자보다도 많았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중국,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 2. 가톨릭의 Tentmakers

마르코 폴로(1254-1323)가 13세기 말에 중국에 갔을 때 그의 여행 동기 중 하나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간 예수회(Jesuit) 선교사들은 비단 장사를 하여 그들의 선교 활동 자금을 조달하였다. 또한 미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 간 로마 천주교회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 3. 동인도 회사의 사목들

동인도 회사 (the East India Company)가 설립되어 초대 대사로 토마스 로우경(Sir thomas rowe)이 부임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사목과 함께 부임하였다. 이때부터 동인도 회사는 일꾼들을 위하여 성직자를 확보하였다. 회사 내규에는 현지 인도인들에게 복음전하기 위하여 현지 언어를 습득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복음주의 각성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목사들이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인도에 갔다. 대표적인 사목인 헨리 마틴(Rev. Henry Martyn, 1781-1812)이었다. 그는 선교사보다 사목으로 갈 것을 결심한 이유는 필요한 선교비 지원의 미화보로 사목의 정기적 사례가 필요하였고, 동인도 회사의

25) John Stewart, The Nestorian Missionary Enterprise: A Church on Fire, (Edinburgh, Scotland: Clarke, 1923), p.34.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p.36재인용.

지기를 영역 내에서의 선교 활동 금지 때문이었다. 그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효과적으로 일하며 현지 언어를 습득하여 신약성경을 힌두스 탄어(hindustani)로 번역하였다.

#### 4. 모라비안 Tentmakers

역사적으로 기독교 부흥운동은 대개 선교 각성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1727년 진젠크로프 백작(Count Zinzendorf, 1700-1760)의 인도 아래 헤른후트(Hernhut)에 모여든 신앙 난민들이 모라비안들이었다. 진젠크로프를 통해 서인도 제도(the West Indies)의 영적이며 육체적인 비참상을 듣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 중 즉석에서 두사람의 기술공이 자비선교사로 그 곳에 가겠다고 자원하였다. 그 두 자원자는 도예공과 목수였다. 그들은 무역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이때부터 이들의 표어는 “직공의 도구를 어깨에 매고 세계의 선교지로 어린양을 따라가자”였다.

또 다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라브라도(Labrador)로 가서 에스키모인들과 교역하면서 최소한의 이윤을 남겨 선교 사업에 사용하였고 에스키모인들의 복지 사업까지 수행했다.

1754년에 라틴아메리카 수리남(Surinam, Dutch Guiana)에 두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재봉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후에 다른 모라비안들이 합류하여 상업, 제과업, 시계 제조업으로 확장되어 직업 없는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이 회사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켐스滕 주식회사(Christoph Kersten & Co.)'인데,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과 회사(Christ-bearer-Christian & Company)이며, 마지막 단어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단결을 상징하였다. 이 회사는 수리남에서 가장 큰 무역 회사가 되었고, 유럽에 지부들을 두고 있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임무에 비해 지원되는 현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증거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자비량 선교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에서 그들의 신앙행위를

이행하는 신자들의 모습은 선교사역에 시청각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 5.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가 된 구두 수선공

윌리암 캐리(William Carey, 1761-1834)는 “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든다.”고 말하였다. 이 주장은 그의 삶의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인도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여 인디오 식물 재배 농장(an Indio plantation)의 감독자로 일함으로서 신약 뱅갈어 번역 작업을 완성하였다.

인도에 도착한지 6년후에 다른 두명의 동료들이 사역에 합류하였다. 이 세명의 자비량 선교사들은 성경 전체를 6개의 다른 방언으로, 신약 성경은 23개의 다른 방언으로, 성경 일부는 10개 이상의 방언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 6. 19세기 Tentmakers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ison, 1782-1834)은 마카오성에서 사역하며 중국어를 습득하여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용을 벌었고 성경전체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요하네스 엠데(Johannes Emde)는 1811년에 시계 제조업자로 인도네시아 들어가 자바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녀의 친척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으며 35명의 회교도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초기 위해 목사에게로 인도하였다. 윌리암 러라츄어(William Lelacheur)는 선장이었다. 영국 무역 상인으로 1848년에 코스타리카에 최초로 개신교 교회를 세웠다. 그는 영국과 타국의 성서공회를 대신하여 코스타리카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였다.

### 7. 일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Tentmakers

미 육사 출신 제인스(Janes)대위는 1781년에 일본 서부의 구마모또(Kumamoto)의 군사학교 교관으로 초청되었다. 그의 영향으로 35명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한 클라크 박사(Dr. Clark)는 1876년에 흑가이도(Hokkaido)의 북부에 농업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초청되었다. 그가 세운 농업학교의 첫 학급 학생 15명 천체가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

### 8. 학생 자원자 운동을 후원한 Tentmakers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운동은 학생 자원자 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886년 미국 메사츄сет츠주 마운트 헐몬(Mount Hermon)에서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의 집회에서 출발하였다. 이 운동의 슬로건은 '세계복음화는 이 세대 안에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였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2만 명이 넘는 남녀 크리스찬들이 세계의 선교 현지로 나갔다.

1906년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평신도 선교 운동(Laymen's Missionary Movement)'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학생자원자 운동의 영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간 젊은이들과 나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보내는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였다.

바울때부터 선교 전략으로 이용되었던 자비량선교가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그 역할의 증대가 요청되고 있다.

## IV. 자비량 선교의 준비와 훈련

지금까지의 선교사 훈련이 신학을 전공한 성직자들 그룹에 편향되어 왔다. 현재도 각 선교단체나 교단에서 선교사 지원 자격 요건을 신학

과정 이수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인 선교단체나 개척선교단체등 일부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준비와 훈련과정중에 신학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그러나 이제는 신학교 졸업생이 아닌 일반 직업을 가진 현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때가 왔다. 그냥 해외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선교사의 자질과 선교사로서의 사역과 방법을 가지고 직장을 통해 세계 각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며, 보고 체계도 책임 한계도 없이, 언어도 배울 생각이 없고 성경 지식도 빈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비량 선교사도 선교사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기 정에 준비해야 할 것과 훈련되어져야 할 것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A. 준비(PREPARATION)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역하게 될 나라와 인종들을 고려할 때, 다음의 아홉 가지 요인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한다.<sup>26)</sup>

- 1.비기독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 2.복음을 들어야 되는 인종 집2단들의 폐쇄성의 증대
- 3.문화 장벽을 넘어 믿음, 신뢰, 이해를 얻어야 하는 문제들
- 4.교회 인구 중심지가 선진 서방 국가에서 제3세계로 이동하는 것
- 5.제3세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의 분출.
- 6.외부 원조를 받을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적합한 교회 개척 전략의 필

26)데츄나오 야마모리, "직업선교사 교육" 「직업선교」 이득수역, p.98.

## 요성

- 7.가진 자의 교회로부터 가난한 자의 교회로 교회 성도권 기초의 이전
- 8.미복음화된 인종의 물질적인 궁핍의 대두
- 9.선진국의 번영과 권력을 가속도로 '따라잡으려는' 미복음화 인종집단들의 지도자들의 야망

이상의 아홉 가지 요인들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현재 이와같은 요인들이 선교지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행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선교단체와 선교전략가, 그리고 개인들이 인식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면, 이제는 자비량 선교사로 준비하는 개인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성령의 권능 면에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자비량 선교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적 개발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자비량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후원을 요청하였다. Tentmakers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지도자로서 리더쉽(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자비량 선교사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가 있다. 받을 자들을 조직화할 때 지도자로서의 리더쉽은 요구된다.

셋째,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결여된 자비량 선교사는 출발할 때와는 달리 현지에서의 적응실패와 교회개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해외파견 근로자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선교사나 자비량 선교사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이지만 자비량 선교사는 더욱더 확실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비량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전문직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살 권리를 얻는다. 제한지역국가<sup>27)</sup>들은 일반 선교사의 입국을 막고 있지만, 전문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사들은 입국시킨다.

어떤 분야이든 전문가이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 더욱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더욱더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격은 상당한 학위와 다년간의 실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비량 선교사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자문화에 대해 굳어져 버린 사람은 타문화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지의 상황은 자기의 계획대로 피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자체가 선교사에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할 상황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적, 신학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적어도 1년은 공부해야 한다. 분국에서도 전도와 예배를 위하여 오늘날 평신도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하물며 해외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기간동안 공부하도록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sup>28)</sup>

27) 제한지역국가 -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이거나, 그리스도를 중거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적인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28)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Grand Rapids, MI : Baker, 1975), P.405.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pp.142-143에서 재인용.

이는 선교사가 성경을 전도와 자신을 위한 영적 양식 공급과 매일의 자침서의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 주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해야 놓아야 한다. 현지의 역사, 정치, 경제, 민족 구성 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현지인들을 사전에 접촉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지의 예술, 관습, 종교들에 대한 사전 이해는 문화적 충격을 줄여 줄 수 있다.

넷째, 언어를 배워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미리 현지 언어를 배워 놓으면 현지에 도착하여 적용하는 기간이나 사역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비량 선교사도 일반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일정한 직업만 갖추었다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B. 훈련(Training)

자비량 선교사의 훈련이 끝났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데츄나오 야마모리는 말한다.

1. 높은 수준의 필요가 요구되는 인종 집단에게 접근(전도와 개종)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인종 집단에 대한 접근 방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다른 가치관,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 행위 언어(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의 눈을 응시하는 등의 행동)와 일부다처제나 음주같이 문화적 가치 측면의 대화에 특히 주의하면서-을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3세계에 대한 건전한 지식-그 단점과 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일반적인 제3세계의 사회 제도와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세계 국민들 '밑에서' 사역하려는 이론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본 방법 - 특히 그가 타문화권 출신인 경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 방법을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통제와 감독 상황하에서 여러 인종들을 대상으로 그 방법들을 사용해 보는 실제적인 경험도 갖고 있어야 한다.

7. 그리스도인 단체를 조직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에 지도자나 조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도 혀지 사역자들이 독립적으로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훈련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비밀'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개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0. 선교지에서 요구되는 어떤 언어든지 적극적으로 익히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의 습득 과정은 선교지로 들어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

11. 선택한 선교지의 주요 종교와 준(準) 종교 사상(예: 공산주의)의 기본 신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독교의 열 가지 장점과 기독교가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열 가지 방법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sup>29)</sup>

훈련의 모든 단계에서 자비량 선교사들은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적이거나 일본적

29) 데츄나오 야마모리, pp.99-100.

이거나 프랑스적이거나 벨기에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해 내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 기술 훈련이다. 현재 선교 상황에 대면할 수 있도록 자비량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임무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도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자로서 자격이 있으며 현지 사역을 고려하여 더 전문적인 훈련은 필요로 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데츄나오 야마모리는 전문 기술 훈련을 Passport Skill이라고 부른다.<sup>30)</sup> Passport Skill이란 자비량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술 직종을 이용해 여권이나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 분명히 그 기술은 자비량 선교사가 한 국가에서 일년 혹은 그 이상 사역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정부를 설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전문 기술 훈련은 선교지라는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다 것이다.

둘째, 선교 현지의 언어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언어인 영어 훈련을 쌓아야 한다. 대개 언어는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기 언어 학교(Sumn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아 두면 다른 언어를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습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주된 목적인 선교 사역은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선교학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선교역사, 선교이론, 교회성장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 사역의 이론과 실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언어습득, 전통종교, 문화적용, 타문화와 의사소통 문제, 사회구조(권위 체계의 구조), 타문화 경험 등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30) Ibid, p.105.

영성훈련, 공동체 훈련, 성격 형성, 기타 여러 가지 훈련 등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은 개인적 준비와 해외로 나가기 전 준비과정에서 다 훈련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각하고자 한다. 선교사로 기다리는 이들은 거의 없다. 오직 훈련에 의하여 갖추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훈련으로 양성되어지듯이, 좋은 자비량 선교사도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 V. 자비량 선교의 전략

### A. 자비량 선교사의 유형

본 장에서는 어떤 자비량 선교사의 유형들이 요청되는지를 크리스티 윌슨(Christy Wilson)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그는 12가지 유형의 자비량 선교사를 말한다.<sup>31)</sup>

1. 모든 믿는 자들은 선교사라는 의미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비량 선교사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되었든지 그냥 고국에 남아있든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또한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 이유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자국에서 외국으로 가지 않고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이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방문자들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난민들과 주변의 소수 민족들 등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3. 초문화 선교를 위하여 정규 선교회와 간계를 맺고 해외에 나가서

31) 91선교한국 단기선교학교 3기 강의안, 크리스티 윌슨의 “Lay Mobilization for World Evangelism : Tentmaking”을 이 예리, 안 진원 역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비량 선교사들은 선교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가 어려운 입국 비자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중국이나 회교권 국가와 같은 복음의 문이 닫힌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을 교회나 선교단체 등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게 된다.

5.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도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6. 교사로서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많은 외국 정부들은 자기 나라에 와서 언어 교육이나 기타 다른 과목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요청하고 있다.

7.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자비량 선교사이다. 믿는 자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각국 정부의 공직자로서, 주요 기관(대사관, 군, 평화봉사단, 유엔 지부 등)의 직원으로서 전 세계 곳곳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9. 단기 해외 봉사를 하는 자비량 선교사가 있다.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매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자비로 선교사를 돋는 학생들과 자기 전공과 관련하여 기관에서의 자원 봉사하는 학생들, 그리고 1년이나 2년의 단기에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 한다.

10. 은퇴한 그리스도인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과 해외 근무의 경험에 근거하여 조언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1. 목회자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세계 도처에 교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영어권 교포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교포 교회들로 있다. 한국 교포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대개 그들이 섬기는 교인들의 자원을 받아서 일하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12. 외국인 방문객을 들수 있다. 유학이나 여행으로 왔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비량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 B. 새로운 선교 전략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해외의 선교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보유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전략으로는 선교를 잘 수행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한 국가들 중 제한되어 가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제한이 완화 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한 지역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한 국가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앞의 도표에서 경제와 정치가 낙후된 국가와 지역들이 더욱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중동의 몇 나라는 제외). 이 사실들은 선교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화 시대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비자 받기는 쉬워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기술, 하이테크

전반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국가일수록 컴퓨터나 시스템 전산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나 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평신도들이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 결과는 일반 선교사 보다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엘리트 계층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젊은 엘리트 계층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나라 복음화의 가장 귀중한 주제들을 놓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 2. 엔지니어

현재 우리 나라 기술자들이 해외의 건설 현장이나 해외 공장에 파견되어 있다. 이들은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실제 현장 일은 현지인들이 감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주조한 기계들이 수출되고 있다. 수출된 기계들의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들은 국내에서 파견된다. 엔지니어 자비량 선교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현지의 중산층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회의 복음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 3. 영어 교사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다. 무역에서 성공하려면 영어 실력이 상당해야 한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특히 경제 성장이 제 1차 목표인 제 3세계 국가에서 영어 교사를 원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한국인들의 영어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교포들의 재 귀국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조기 유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들이 영어 교사 자격증 TESOL을 취득한다면 세계 곳곳에서 부를 것이다.<sup>32)</sup> 영어 교사는 교재의 선택이나 수업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 4. 의료 사업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준 의료인(조산원, 기타)은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 가는 소식을 쉽게 접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32)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 미국 대학과 신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다.

는 더하다. 의료인에 한에서는 대부분의 제한 국가들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거부하고 있는 지역들은 국제 봉사단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계층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청은 증대될 것이다.

### 5. 농업

농업은 전세계에서 수요가 대단한 기술이다. 세계에는 수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 따라서 식량 증산에 도움이 되는 농업 기술은 언제나 환영받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회교 국가들에 있어서 더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은 단시간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된다. 현지 농장에서 일꾼들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어떤 분야보다 많다. 식량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 기술은 결코 세계의 농업 기술에 뒤지지는 않는다. 또한 쉽게 익힐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최첨단의 생명공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기초 농업 분야가 발달되지 못하였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분야에 걸쳐 전문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본 글에서는 자비량선교가 제한 국가 선교 전략으로 효과적이라는 근거 제시로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았다. 제한 국가들이 일반 선교사 입국은 제한하는 추세이지만 전문인들의 입국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제한 국가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있는 목사나 신학생들은 기술 자격증 취득을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결 론

21세기의 세계 선교는 20세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20세기만

해도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제한 국가의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들 국가들은 정규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 3의 물결이 20세기 말에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의 선교는 몇 년 남지 않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전략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세워져야 한다. 본 논자는 현재의 흐름이나 앞으로 세계 선교가 요구하는 선교 전략으로 자비량선교를 제시하였다. 이제 자비량선교의 장·단점과 자비량선교에 대한 제안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 A. 자비량선교의 장·단점

#### 1. 장점

직업 선교사의 사역이 전통적인 선교사의 사역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직업 선교사는 언제나 사역지에서 자비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복음 전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비량 선교사는 전문적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선교지 입국 비자 발급이 성직 선교사보다 용이하다. 현재 이슬람교나 힌두교 국가 중 대다수는 기독교 선교사의 입국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나라의 대부분이 전문적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의 입국에는 문을 상당히 넓게 열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교 활동은 교사하고 문전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입국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사실들을 주지할 때 자비량 선교의 효율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된다.

둘째, 돈 때문에 선교한다는 인상을 배제할 수 있다.<sup>33)</sup> 아시아 일부 지

역에서는 종교인은 직업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종교인들의 열심이나 모든 활동도 궁극적으로 「자기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일에 종사하면서 전도하면 경제적 수입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인식하게 된다.

셋째, 선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필요가 없다. 자비량이 직업 선교사의 지속적인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현재 전통적인 선교사가 갖추어야 되는 재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자비량 선교사는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므로 일의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수도 선교사보다 더 많을 수 있거나 귀국 후에도 어려움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다.<sup>34)</sup> 그러나 전문적인 선교사는 질병이나 사고로 귀국해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자비량 선교사의 선교 활동은 추적 당할 수 없는데, 이는 파송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비량 선교사의 전문 기술로 말미암아 전도적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제한된 강당에서 외치는 형태가 아니고 생활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를 덜 받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 2. 단점<sup>35)</sup>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비량 선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들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비량 선교사는 광야를 휘젓고 다니는 고빠 풀린 망아지와 같이 되기 쉽다. 그들은 선교지에 나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동

33)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pp. 127-128.

34) Ibid., p. 128.

35) 돈 해밀顿,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pp. 27-28에서 발췌 요약.

역 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사역을 한다. 팀 사역도 아니고, 보고 체계도 없고, 책임 한계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시견이 없다. 그러므로 잘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자비량 선교사들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미숙한 가운데 선교지로 나간다. 그들이 맞부딪칠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도 지식도, 자원도 결여된 상태이다.

셋째, 자비량 선교사들은 그곳 언어 배우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

넷째, 자비량 선교사들은 시간과 정력을 일에 쏟아야 하므로 사역은 유야무야가 된다.

이상과 같은 경우들은 앞에서 정의한 자비량 선교사가 아니라 단지 해외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에 해당될 뿐이다. 자비량 선교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식 선교사이다.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고삐 풀린 맘아지가 아니며, 보고 체계도 책임 한계도 없이, 언어도 배울 생각이 없고 성경 지식도 빙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비량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이다.

## B.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제안

금세기 말에 이르러 선교의 가장 큰 변화는 제한 국가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규 선교사들에게 자국 영토 내에서의 사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 국가가 1989년로 잔 2차 대회의 통계의 의하면 무려 119개국, 38억 인구에 해당한다.<sup>36)</sup>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국가의 80% 이상이 정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제한 국가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보편적이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 과업의 가장 큰 난제이다. 따라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신학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 3의 물결 속에 과거 19세기 선교 방식에서 탈피한 전방위 선교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지의 변화는 선교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사가 되어 파송받고 교회는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은 세계복음화라는 과업의 수행을 지체하게 하고 있다.

선교지의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 선교사로 들어갈 수 국가에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선교사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한국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전문인 또는 자비량 선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21세기 선교는 정규 선교사보다 자비량 선교사 수요가 더 증가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대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 이 대명령 아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선교전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낯설기만 한 자비량 선교사 발굴과 자원에 나서야 할 때다. 또한 내면적으로 이들을 선교사로 인정하여 기존의 정규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개인이나 사회는 자연 도퇴될 수밖에 없다. '새술은 새가죽 부대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21세기의 선교전략은 자비량 선교가 될 것이다.

36)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서울: IVP, 1880), p. 65.

## ◎ 참고 도서

-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 김인수 외. “21세기를 향한 전문인 선교와 비전”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추수 전략을 가지라」 서울: 나침반, 1994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Tetsunao Yamamori, 「God's New Envoys」 Oregon: Multnomah Press, 1986.
- 크리스티 월슨.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만풍 역. 서울: 순출판사, 1993.
- 마이클 그리피드. 「선교사가 되려는 분에게」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3.
- 데이빗 학카드. 「OMF와 전문인 선교」, 「아시아 기도」 1991년 5/6월호.
- 돈 해밀튼.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진환 역. 서울: 죄 이선교회, 1991.
- 룻 시멘즈와 4인. 「직업선교」 이득수 역. 서울: IVP, 1994.
- 피터 와그너. 「기독교 선교 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김성복. “단기선교란 무엇인가?” 「선교21세기」 1994년 7,8월호.
- 그루터기 선교회. “평신도와 직업인 선교의 소명.” 「현대종교」 1996년 11-12월호, 1997년 1월호.
-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 「“세계 미전도 종족 현황과 도전”-그 선교는 어디까지 되어 왔는가?」 서울: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본부, 1995.
- '91선교한국 단기선교학교 3기 강의안, 크리스티 월슨의 “Lay Mobilization for World Evangelism : Tentmaking” 이 예리, 안 진원 역.

## 중세시대 기독교의 반 유대교 운동 연구

-1263년 바르셀로나 논쟁을 중심으로-

김재현

(총신, 신대원 3년)

## 목 차

제 1 장 : 서 론

제 2 장 : 바르셀로나 논쟁의 배경

2-1. 12세기까지의 반유대교 운동

2-2. 13세기 급진적인 반 유대교운동의 원인

2-3. 바르셀로나 논쟁의 배경

제 3 장 : 바르셀로나 논쟁 분석

제 4 장 : 바르셀로나 논쟁의 의의와 결과

4-1. 바르셀로나 논쟁의 의의

4-2. 바르셀로나 논쟁의 결과

제 5 장 : 결 론